

투표율 높이기·보이콧 ... 强대强 대결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첫날 12% ... 통합과 "20% 훌쩍 넘길 것" 반대파 "K보팅 문자 열어보지 말라" 투표 참여 저지에 총력

국민의당의 운명을 가를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연계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全)당원투표가 27일 시작됐다. 당 내 통합 반대 의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당 내의 찬반 갈등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전당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분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투표율은 12%를 넘어섰다. 당 내외에서는 전당원투표 결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 반대파의 투표 거부 운동 등으로 안 대표의 재신임 찬성율은 70%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안철수 대표 측은 당 선관위가 최소 투표율 기준 없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투표 거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27 전당대회 당시 최종 투표율인 24.26% 내외를 기록하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안 대표 측은 지난 전대 당시 첫날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10.51%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당원 투표율은 20% 수준을 훌쩍 넘어설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 반대 진영에서는 전체 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재신임 찬성표가 많더라도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첫날 투표율이 높은 것은 안 대표 진영에서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집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종 투표율이 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율이 8·27 전당대회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 통합에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시킨 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통합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

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표율이 지난 전대 수준을 넘어설 경우, 통합 반대의 명분도 설득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주인임을 담당하게 선언하고 당의 진로와 저의 재신임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 등 통합 반대파는

"K보팅 문자가 오면 열어보지 말라. 그대로 두는 것이 국민의당을 살린다"며 투표 참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 측이 투표율과 관계 없이 전당원투표에서의 재신임 찬성을 명분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밀어붙일 경우, 찬반 진영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올해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7일 철쭉같은 지하 440m의 어둠 속을 빠져나오는 화산탄광 광부들의 머리 위로 한 줄기 조명이 태양처럼 반짝이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탄광에서 작업을 마친 뒤 경도열차에 몸을 실은 광부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느껴진다. 지난 한 해 꿈을 잃지 않고 바빠 달려온 광주일보 독자와 광주·전남 모든 지역민들에게도 다가오는 무술년에는 화산탄광을 환하게 비친 저 불빛처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해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 이재영 전남지사 대행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최선"

송년·신년 기자회견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다가오는 무술년의 청사진을 내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각각 내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27일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장에서 송·신년기자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2018년에는 시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최첨단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3대 벨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더 나은 자치공동체 조성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도시상 등 3가지 방향으로 압축한 시장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세부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미래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로봇,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10년간 1조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창업단지는 광주의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에너지산업특별법 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스마트 에너지기업 등을 유치해 차세대 에너지 융합 생태계도 조성한다.

윤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당당한 청년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5·18관련 특별법이 정치권내 이견으로 무산돼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도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 7기가 도민의 기대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와 포스트 전남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주요 도정 방향으로 ▲충돌 없는 차세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농어 소득 향상과 미래 농수산업 육성 ▲전남 관광 5000만명 시대 실현 ▲세대·계층·지역·문화·복지정책 강화 ▲SOC 확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 등을 제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로드맵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그러면 해당 지자체도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중간자다"면서 "이전 후보지 지자체와 광주시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하고 가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근혜 정부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 숨졌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견 수렴 노력 안해

2015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는 피해자 의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2면>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협상에 임할 당시 양국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피해자 단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고서

는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냈던 10억엔의 액수 산정에 관

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은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액정해진 액수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합의 발표 이후에도 '관련단체 설득', '제3국 기립비', '성노예' 표현 등 시민 사회의 활동이나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합의 사항을 비공개로 해왔다. /연남뉴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전남 스포츠 10대 뉴스 ▶ 20면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상품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국내여행
- 할인항공권·KTX기차표
- 허니문·단체여행
- 골프투어·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겨울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	①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12월 31일(일)	99,000원
	② 정동진·월정사·휴휴암 기차여행(무박 2일)	1월 05일(금)	120,000원
	③ 태백산 눈꽃축제·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④ 정동진 일출·하이원스키장 관광 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	① 남이섬 자유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② 대둔산 케이블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75,000원
	③ 남해 보리암·독일마을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④ 서천 국립생태원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⑤ 서울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08,000원
	⑥ 정동진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20,000원

섬여행 상품	① 홍도·흑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② 울릉도·독도 여행(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③ 거문도·백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④ 청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⑤ 백령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55,000원~
	⑥ 대마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90,000원~

버스여행 상품	① 고령 고분군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② 날뚝보소 밀양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30,000원
	③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운행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 | 울산광역시